

빛의 역사와 어둠의 기억: 세계문화유산 미이케 탄광의 ‘부(負)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영진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이 글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한 자산인 미이케 탄광의 여러 숨겨진 기억들을 지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유산화가 초래하는 영향들에 지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고찰한 논문이다. 미이케 탄광은 124년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일본 최대의 탄전으로, 근대 일본의 산업화를 이야기함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기억의 장이다.

하지만 ‘근대 일본 초기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국가주도적 내러티브는 미이케 탄광에 대한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감정기억들을 담아내기에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사회의 집합적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전후 일본의 최대의 노동쟁의로 알려져 있는 ‘미쓰이 미이케 쟁의’(1959-1960)와, 뒤이은 ‘탄진폭발사고’(1963)이며, 이 사건들을 둘러싼 지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입장 차이와 감정적 대립은 현재까지도 지역 사회의 기억 실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근대 일본의 빛나는 산업화를 강조하는 세계유산의 공식적 수사학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미이케 탄광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중국인 강제노동이나, 탄광 개발 초기 수인(囚人) 노동의 역사 등 다양한 어둠의 기억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런 점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신화적 기억 속에 봉인되어 버린 미이케 탄광의 다양한 어둠의 역사를 읽어 내고자 하는 이 글의 시도는 과거의 진정한 형상으로서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찾고자 했던 벤야민의 미학적 작업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부의 유산, 미이케 탄광, 기억의 정치, 유산화, 변증법적 이미지

기념은 체험(Erlebnis)의 보충이다. 자신의 과거를 사장된 재산으로 목록화하는 사람의 점증하는 소외는 기념 속에 자리 잡는다. 알레고리는 19세기에 외부 세계를 떠나 내부 세계에 자리를 잡았다. 성유골(聖遺骨 Reliquie)은 시체에서 생겨나고, 기념은 완곡하게 말해서 체험이라 불리는 죽어 버린 경험에서 나온다.

-발터 벤야민, 「중앙공원」 중에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53392).

I. 들어가며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8개현 23개에 이르는 자산을 시리얼 노미네이션(serial nomination) 형식으로 등록한 산업유산군 중에서, 후쿠오카 현 오무타(大牟田) 시·구마모토 현 아라오(荒尾) 시에 걸쳐 있는 미쓰이 미이케 탄광은 근대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 산업을 상징하는 곳으로, 메이지 시기부터 석탄 채굴이 시작된 미야하라 갯(宮原坑, 1898)과 만다 갯(万田坑, 1902)을 위시해 미이케 탄광 전용 철도 흔적(三池炭鉱専用鉄道敷跡, 1905), 미스미니시항(三角西港, 1887), 미이케항(三池港, 1908) 등 다섯 장소가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쓰이 미이케 탄광은 124년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일본 최대의 탄전으로, 근대 일본의 산업화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빠트릴 수 없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기억의 장이자, 일찍부터 산업유산으로 거론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 명명된 이 유산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이전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황선익, 2016; 竹内康人, 2018; 이영진, 2020). 물론 그 논란의 핵심은 이들 자산군 대다수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강제 징용이 이루어진 역사적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들이 몰고 올 파장을 의식했던 일본 정부 대표단의 사토 구니(佐藤地) 유네스코 대사는 2015년에 열린 유네스코 본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정부로서도 징용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작정이며, 일본은 희생자들(victims)을 추도하기 위하여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설명전략에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약속했고, 그 결과 조건부 등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약속 이행은 계속 늦춰졌고, 결국 5년 후인 2020년, 도쿄에 세워진 인포메이션 센터는 한국인 강제 동원이나 전시기 조선인 차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혹은 그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시마(端島, 군함도) 섬 원주민들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소개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논란의 인포메이션 센터 전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동안 잠잠

했던 논란은 최근(2022년 2월), 일제 시기 강제 징용의 현장이기도 했던 니가타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내각 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재점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전시기의 강제노동을 둘러싼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그 시기를 센코쿠(戰國) 시대(1467~1590) 말기부터 에도 시대(1603~1867)까지로 한정해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법은 그 기간을 1910년으로 한정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서도 이미 사용된 바 있는데, 문제는 이들 자산군들 중 전후까지 가동을 계속해 온 생산시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의 기억을 포함한 다양한 입장의 당사자들의 기억이 뒤얽혀 복잡한 기억의 정치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 글 역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 내포된 역사 인식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기존 논고들의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강제동원에만 논의를 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동원이 본격화되는 1940년대, 그리고 제국과 식민지, 이민족 차별 등의 문제만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면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내러티브가 갖는 다른 문제점들은 물론,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이들 유산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제약이 유산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음을 그 한계로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제철소, 탄광, 조선소 등 근대 산업유적들의 문화유산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 한정되지 않는, 산업유산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공식 내러티브 속에 드러나지 않는 미이케 탄광의 여러 숨겨진 기억들을 지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유산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양상과 사회적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유산화가 초래하는 영향들에 지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문화유산’, ‘유산화(heritagization)’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하여

문화유산 붐은 과거 산업혁명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유산 붐의 상업화,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heritage industry)의 문제점에 대해, 휴이슨은 일찍부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양길에 들어서 있다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자, 문화유산의 개발은 반민주적인 가치를 다시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문화를 억압하면서 쇠락화의 추세를 강화하는 것”(Hewison, 1987; 어리·라슨, 2021: 252에서 재인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화유산이 갖는 압도적인 시각적 특성 때문에 외관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전쟁, 착취, 기아, 질병, 법률 등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체험들이 사실상 무시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어리·라슨, 2021: 258). 또한 로젠탈은 ‘유산’과 ‘역사’를 구분하면서, 역사(학)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검증에 기초해 탐구하기 때문에 항상 비판에 열려 있는 데 반해, 유산은 오히려 특정 유토피아적인 과거의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신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글로벌한 ‘유산화’ 현상에도 공통되는 것이다(Lowenthal 2015[1985], 木村至聖·森久聡編, 2020: 7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다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문화유산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변모하는 극단적인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의 부정적인 경향성에만 주목하는 시각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관광 사회학의 명저로 평가받는 『관광의 시선』의 저자 어리(John Urry)는 문화유산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 민족적 성지 및 건물에 대한 문화유산 관광과 여행이 문화, 지역, 민족에 있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유산화의 일방주의적 경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역에 밀착된 풀뿌리 사회단체들의 활동에도 주목한 바 있다(어리·라슨, 2021: 262-266). 실제로 노동자나 지역주민이 애착을 갖는 대상을 지키고자 스스로 보존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관광객도 국가의 생각 그대로 문화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산의 성질을 일면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반론이다(木村至聖·森久聡編, 2020: 8).

이런 맥락에서 고고학자 K. 월쉬는 문화유산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과거와의 관계성을 전제로 사물이나 전통 분류의 방법에 관련되지만, 또 동시에 종종 파괴되기 쉬운 것으로 유연하게 이해하면서, 어떤 대상이나 장소가 기능적인 ‘사물’에서 전시·진열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산화’라고 명명한다(Walsh, 1992; 木村至聖·森久聡編, 2020: 4-5 참조). 또한 문화유산학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스미스는 푸코의 담론 이론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 가치의 창출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과정(process)”으로 정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질화된 유산의 가치를 누가 말하고, 혹은 지킬 권리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지배적 담론(AHD,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이 만들어지고 그 지배적 담론과 관계를 맺는 행위자들(엘리트 사회계급)과 그렇지 못한 행위자들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대한 탐구, 즉 담론의 정치학을 새로운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Smith, 2006: 29-30).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유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변화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구, 즉 다양한 입장의 관계자나 지역 주민이 다양한 제도나 사상 속에서 하나의 사물이나 장소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그 다양성과 관계성을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유산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시민·주민의 손으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전시기 일본의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에 대한 오랜 기간의 자발적 조사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가진 문제점을 일찍부터 비판해 온 ‘강제연행진상규명네트워크’의 활동은 이러한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유산화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미이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공식 팸플릿의 내러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석탄 산업의 발상지로서 미이케 탄광의 가치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당시 탄광 노동의 현실이나 그것에 얽힌 부의 기억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근대화 초기 탄광의 비참한 노동의 역사로부터 전후 석탄산업의 쇠퇴와 맞물려서 발생했던 여러 갈등들, 그리고 이제는 폐허로 화해 버린 미이케 탄광의 전체상에 대한 고려 없이, 어느 특정시기, 그것도 191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

자로 끝나는 메이지기(1868~1910)에 한정해서¹ 그 유산의 가치, 즉 초기 산업화의 빛나는 역사를 그려내는 기획이 과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그토록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와 ‘진정성(authenticity)’을 담아낼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장소에 포함된 생생하고 다양한, 때로는 부정적인 기억들을 소거해서 무해한 아이콘으로 만드는 문화유산의 ‘소독 작용’(荻野昌弘, 2002: 216)은 미이케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생산과 노동의 현장으로서 미이케 탄광에 얽힌 다양한 기억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지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화유산의 공식 수사학이 만들어 내는 ‘망각의 구멍(아렌트, 2006: 213)’²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폐탄광이 산업유산, 나아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관주도적인 기억의 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매끄럽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으며”, 따라서 “(문화재들의) 그런 전승에서 비켜서서”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을 역사적 유물론자의 과제로 제시한 벤야민(2008)의 언명을 다시금 상기하면서,³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이라

¹ 일본 역사에서 메이지기(明治期)는 1868년부터 1912년까지이다. 그런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그 시기를 19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선인 전시동원 문제를 이유로 세계유산등록에 이의를 주장할 한국 정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타당한 것이고 일본 사회 내부의 비판적 지식인들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견해이다(시바타 토시아키, 2017). 물론 일본 정부 측은 이러한 해석을 부인하며, 일본이 산업국가로 세계에 인지된 해가 1910년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으며, 시기 한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진(2020)을 참조할 것.

² ‘망각의 구멍’은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장치로서 희생자를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 버리는 수용소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썼던 은유이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기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읽어내며, 이 ‘망각의 구멍’의 의미를 사유한 바 있다. 다카하시가 인용한 일본어 역본이 한글 번역본보다 그 뜻을 더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인용은 다카하시의 원문을 참조했다. “(비밀) 경찰 관찰하의 감옥이나 수용소란 단순히 불법과 범죄가 행해지는 장소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떨어질지 모르는, 떨어진다면 애초에 이 세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소멸해버릴 망각의 구멍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살해가 일어났거나 누군가가 죽었음을 알려 주는 시체도, 무덤도 없었다. 이 최신의 숙청 방식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 또는 다른 시대의 정치적 살인이나 범죄적 살인 따위는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행해진 정말이지 원시적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 한 인간이 애초부터 이 세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듯이 살아 있는 자들의 세계에서 말살되어 버릴 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살해되는 것이다(다카하시 데쓰야, 2021: 13-14).

³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7번 테제의 한 구절이다. 번역은 미카엘 뢰비의 텍스트(2017: 98)를 참조했다.

불렀던 1959~1960년의 미쓰이 미이케 쟁의, 전후 일본의 최대 산업재해 중 하나였던 1963년의 탄진 폭발 사건,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 노동의 역사, 그리고 미이케 탄광의 탄생과 궤를 함께하는 비참한 수인(囚人) 노동의 역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역사적 기억들을 근대 국가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기억으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권력의 의도와 함께, 그렇다면 “사회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Urry, 1996), 즉 과거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역들, 그리고 근대 일본과 같이 산업화, 즉 근대화가 제국화, 즉 동아시아 침략의 역사와, 패전과 전후 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겹쳐지는 사회에서, 산업유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내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III. ‘폐산’에서 문화유산이 되기까지

1997년, 규슈 오무타, 아라오 일대의 땅 밑바닥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굉음을 끝으로 미쓰이 미이케 탄광은 폐산했다. 메이지정부가 근대 산업의 기초로서 탄광의 국가 영유 선언을 한 지 124년, 그리고 미쓰이가 탄광을 인수한 이후로 보더라도 10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이케 탄광은 이렇게 가동을 멈춘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미이케 탄광의 주요한 두 갱구였던 미야하라 갱과 만다 갱은 폐산 직후인 1997년, 1998년부터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약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일본 최대의 탄전이라는 미이케 탄광의 명성을 떠올려 본다면 폐광 이후의 문화유산화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폐광에서 문화유산으로의 이행은 결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듯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미이케 탄광은 1888년 관영에서 미쓰이 재벌에 불하되어 미쓰이 미이케 탄광이 된 지 15년 후인 1903년에 이르면 전국 출탄고 1,013만 8,000톤의 11%에 달하는 111만 5,000톤을 출탄하면서 일본 제1의 탄전이자 미쓰이 재벌의 달러박스(上妻幸英, 1980: 127)라는 명성을 획득했다. 다이쇼, 쇼와 초기에

는 풍부한 석탄을 이용한 화학 콤비나이트의 기반으로 성장했고, 전쟁 말기에는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1945년 패전 직후에는 다시 산업 부흥을 위한 핵심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이라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혁명의 일환으로 통산성이 주도한 ‘석탄산업합리화기본방침’(1954), 석탄광업합리화임시조치법(1955, scrap and build)의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미이케 탄광은 쇠락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전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1959년의 미이케 투쟁은 이러한 석탄 산업의 쇠락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측의 구조 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조 측 사이의 일대결전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결국 노조 측의 패배로 끝나면서 인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사측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1963년 일본의 산업재해라 불리는 탄진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미쓰이 미이케 탄광의 쇠락은 가속화된다(平井陽一, 2000). 지역 사회가 폐광 이후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기간산업을 상실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사업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산탄지처럼 관광산업이었고, 그 핵심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던 테마파크 건설이었다. 그중에서도 아라오시의 원 탄광주택지에 미쓰이 광산이 건설한 ‘미쓰이 그린랜드’(현 그린랜드)는 그 효시였다. 이 시설은 그 후 몇 번인가 회사가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인 1990년에 국가, 구마모토현, 민간 기업에 의한 제3섹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시아 파크’와 2000년도에 민간 기업이 만든 ‘규슈 왕왕 왕국’은 결국 입장객 수를 늘리지 못하고 거액의 손해를 진 채 각각 2000년, 2005년에 문을 닫았다. 한편 오무타시에서는 1995년 아리아케(有明) 해 임해지역에 있던 저탄장지에 후쿠오카현·오무타시·미쓰이 광산·미쓰이 화학 등이 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에 의해 ‘네이블 랜드’가 개원하지만, 3년 후 역시 거액의 손해를 진 채 문을 닫았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1996년에 엔타니(円谷) 프로덕션이 창설한 ‘울트라맨랜드’뿐이다(松浦雄介, 2013: 40).

지역 사회에서 폐허로 변한 탄광을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일련의 테마파크 사업의 쓰라린 실패와 1990년대 문화청의 주도로 이루어진 근대화유산 조사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 사업 결과, 폐산

다음 해인 1998년에 미야하라깡과 만다깡 등의 탄광유적이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이 무렵(2001년) 유산화에 관해 지역 사회 내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탄광유적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 NPO ‘오무타·아라오 탄광의 마을 팬클럽’ 발족이다. 이 NPO는 지난 과거의 미이케 탄광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모여, 지역사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단체이며, ‘탄광의 마을 풍경·심상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탄광유산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永吉守, 2008). 물론 이들 시민단체는 ‘규슈의 유산’과 같은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협조관계에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유산의 시선’에서 본다면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는 주민들의 일상적 기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건축물이나 경관을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유산화하고자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시민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유산의 시선’의 내재화·로컬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적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어떤 때는 보완하고 어떤 때는 비판하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유산으로 만드는 것이다(松浦雄介, 2012: 90-91).

두 번째는 오무타시가 추진했던 ‘소리의 박물관(こゑの博物館)’ 사업이다. ‘소리의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폐산 다음 해인 1998년에 열린 심포지엄이었다. “미이케에는 아무래도 부의 유산이 너무 많다 …”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심포지엄의 기획자였던 당시 시 직원이 탄광을 부의 유산으로 그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경향에 위기감을 느끼며, ‘소리의 박물관’ 사업을 구상했다. “사람이 살아온 증거가 그 마을의 역사이자 문화다. 그것을 ‘부의 유산’이라는 말만으로 소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행정이 보고도 못 본채 한다면 행정의 마을 만들기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吉田勉夫, 2009) 또한 이 심포지엄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다큐멘터리 감독 구마가이 히로코(熊谷博子) 역시 ‘부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진심으로 마주 대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면 보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현대의 연금술이라고 믿었다.”라고 찬동 발언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소리의 박물관 사업은 착수되었

다(이상 熊谷博子 2012: 378). 구마가이 감독의 작품 <미이케 끝나지 않은 탄광의 이야기[三池 終わらない炭鉱の物語]>(2006)는 소리의 박물관 사업에 참가한 감독 자신이 이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 약 7년에 걸쳐 미이케에서 태어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인터뷰와 관련시설 영상을 엮은 다큐멘터리로,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호평을 얻었다. 소리의 박물관 사업이 남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오무타 석탄기념박물관의 상설 전시로 남아 있다.

2006년부터 규슈 지역사회가 공통정책으로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규슈의 근대산업유산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운동 역시 그 애초의 출발은 1998년 이후 추진해 오던 지역 활성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 지역사회가 생각하고 있던 문화유산의 모습은, 앞서 NPO ‘오무타·아라오 탄광의 마을 팬클럽’이나 ‘소리의 박물관’ 사례가 잘 보여 주듯, 부의 역사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경험했던 탄광 마을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실제로 소리의 박물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이케 쟁의와 그 뒤를 이은 탄진 폭발 사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증언이다.

그런데 2008년 일본 국내 잠정 리스트에 등록된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 비서양세계에서 근대화의 선구’라는 명칭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었을 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라는 명칭으로 변화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유산 등록과정에 내각 관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애초에 의도했던 지역의 정체성 문제보다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이라는 국가의 관주도 근대화에 내러티브의 무게가 쏠리게 된다. “일본은 비서구 국가들에서 처음으로 산업혁명의 물결을 수용하고, 50여 년 만에 식민지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화를 성취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세계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산업화의 국면을 증언하는 유산군이다.”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공식기념지의 “개요(Executive Summary)”에 담긴 선언은, 유산을 바라보는 내각관방의 의도를 잘 보여 준다. 해당 시기를 1910년으로 한정해 미야하라 갱, 만다 갱 등 관련 자산들의 이후의 역사를 잘라 버린 것도 문제지만, 해당 시기 내에 있었던 어둠의 역사들을 소거해 버린 것도 빛나는 성공 신화라는 하나의 단일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의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기획 아래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넘어 강력한 ‘감정기관(emotive institution)’(White, 2005)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기관을 이끄는 동력은 노스텔지어이다. 노스텔지어는 어원상 그리스어 *nostos*(집으로 돌아가기)와 *algia*(고통)에서 유래하는 조어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의 병리학적 용어였지만, 오늘날에는 “현재 혹은 절박한 상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배경으로 살아온 과거를 긍정적인 울림으로 불러내는 정서”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Davis, 1979; 木村至聖·森久聡編, 2020: 52에서 재인용).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거치면서 현재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 공포, 불확실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쇼와로 상징되는 전후의 풍요, 그리고 조금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력으로 근대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메이지 일본의 신화에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기관이 만들어 내는 노스텔지어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상기되는 과거에서 당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 혹은 죄의식의 기억을 소거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문화유산 기획이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감정 기억들을 전부 담아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억의 소거 작용은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나는 근대화 유산이라는 스펙터클에 가려진 미이케 탄광의 숨겨진 기억들은 무엇이고, 또 그 기억들은 어떻게 상기되는가. 지역 사회 주민들은 동일한 역사의 현장을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한 시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시선의 차이는 어떤 정치적 장(arena)을 형성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공식적 역사에서 지워진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 내면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IV. 세계유산의 공식적 역사에서 소거된 기억들

1. 미쓰이 미이케 쟁의(1959-1960)

지금 나는 소세키론을 썼던 1960년대를 어떤 거리를 두고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바꾸어 말하면 나로부터 외계(外界)를 잃게 했던 그 시대의 성격을 ‘바깥쪽에서’ 보는 일이 가능한 듯한 느낌인 것이다. 내가 떠올리는 것은 1960년대 초 안보투쟁과 쌍벽을 이루는,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 곧 결과적으로 ‘깡부’나 ‘땅 밑’을 일본에서 거의 사라지게 한 미이케 투쟁(三池闘争)이다.

—柄谷行人, 「계급에 대하여: 나쓰메 소세키론 1」 중에서—

미쓰이 미이케 쟁의(이하 미이케 쟁의)는 1959년 1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미이케 지역에서 일어난 전후 일본 최대의 노동 쟁의로 일컬어지는 사건이다. 당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미쓰이 회사 측이 제시한 대규모 인원 삭감안(1,492명 퇴직 권고안)에 대해 노동조합(미쓰이 노조) 측이 반발하며 시작된 쟁의는, 재계가 미쓰이 회사 측을, 일본노동자총평의회(총평)가 미이케 노조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 ‘총자본 대 총노동의 대결’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제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이 자신으로부터 ‘외계를 잃게 했던’, ‘1960년대 초 안보투쟁과 쌍벽을 이루는, 아니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회고하고 있듯이, 미이케 쟁의는 전후 일본의 가장 중요한 기억의 장소의 하나이자 동시에, 현재 미이케 탄광 지역 주민들의 집합적 기억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쟁의의 배경에는 이후 미이케 탄광의 폐광과도 연결되는, 1950년대부터 진행되던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 전환에 의한 석탄 수요의 감소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고자 정부가 꾸린 석탄광업 심의회는 석탄산업의 본격적 합리화를 위해 고능률 탄광에 생산을 집중하고, 비능률탄광을 폐산 조치하는 이른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1963년까지, ① 출탄량을 5,000~5,500톤으로 증산, ②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톤당 1,200엔으로 인하, ③ 당시 약 27만 명에 이르는 광부를 11만 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책의 마스터플랜이었다. 미쓰이 측 역시 3기(1년 반) 연속 10억 엔을 상회

하는 손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화정책을 세우고 인원 감축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당시 일본 노동운동의 지표로까지 간주되던 미이케 노조의 기반을 붕괴하기 위해 직장 활동가들을 인원 정리하려는 것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미이케 노조는 회사 측이 관리하는 작업지휘계통을 해체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자의 배치와 작업량을 결정해서 노동 강도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자주 관리를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직장투쟁에 의해 형성된 노동자적 직장 질서를 미이케 노조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 측이 그것을 붕괴시키고 직장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경영권을 재건할 있을 것인가라는 쟁점은 당시 일본 재계와 총평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것이 미이케 쟁의를 대규모,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이상 미이케 쟁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平井陽一, 2000: 1-3 참조).

지명 정리 해고 움직임에 반발하는 노조에 대해 회사 측은 1960년 1월 파업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며 노동현장을 폐쇄했고, 노조 측은 “떠나도 지옥, 남아도 지옥(去るも地獄 残るも地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쟁의는 점차 과열된다. 특히, 1960년 여름, 경찰 2만 명, 조합 측 2만 명이 일축 즉발 상태로 미카와(三川) 갭 부지의 저탄조(貯炭槽)에서 대치했던, 일명 ‘홋파(ホッパ) 결전’⁴은 쟁의의 절정이었다. 일본 사회를 들끓게 했던 안보조약 반대투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당시 전 국민의 시선은 미이케로 쏠려 있었다. 하지만 ‘철의 단결’을 자랑하던 미이케 노조도 쟁의가 장기화하고 파업에 의해 수입이 끊어지면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었던 일부 조합원이 회사 측의 공작이기도 했던 제2노조(미이케 신노조)를 결성, 파업을 이탈하면서 이미 그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결국 경찰 측의 최후통첩이 예고된 7월 21일(이날은 홋파 주변 진입 금지 가처분 집행일이었다)의 하루 전날인 7월 20일 노조 측이 총들의 참사를 피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3번째 알선을 받아들이면서 싸움은 실질적으로 조합 측의 패배로 끝이 났다. 많은 수의 조합노동자들은 사측의 지명해고를 당해 회사를 떠나야

⁴ ‘홋파’란 채굴한 석탄을 외부에 반출하기 위해 일시 저장해 두는 저장고로, 조합 측이 이곳을 점령했기 때문에 제2조합이 석탄을 채굴해도 출하가 정지되면서 홋파 사수냐, 배제냐의 문제가 쟁의 최후 국면의 초점이 되었다(平井陽一, 2000: 207-208).

했다. 공장 폐쇄 해제는 파업 돌입으로부터 282일째, 취로가 재개된 것은 313일째인 1960년 12월 1일이었다(이상 미이케 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平井陽一, 2000: 131-203 참조).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조합의 분열은 마치 내전 이후의 사회와 같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생채기를 냈다. 오랜 세월 비좁은 탄광주택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왔던 지역사회에서 제1노조(구노조)와 제2노조(신노조)가 분열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묻는 가운데,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지역 사회의 결속도 서서히 붕괴되어 간다. 또한 쟁의가 실질적으로 미이케 1노조 측의 패배로 끝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으며, 설령 복귀했다 하더라도 1노조 출신 노동자들은 한직이나 위험한 장소로 몰리는 등 냉대를 받았던 점도 서로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 되었다. 결국 어른들의 싸움이 아이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결국 제2노조 가족 3,500여 명이 ‘집단소개’ 하면서 공동체는 완전히 분열된다(熊谷博子, 2012: 94-95).

그러한 분열이 남긴 감정의 골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탄진 폭발 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미이케 탄광의 문화유산화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지 기법으로 미이케 지역의 원 탄광 관계자들의 집합적 기억을 조사한 사회학자 마쓰우라의 연구(松浦雄介, 2013; 2018)에 따르면, 노동조합(미이케 노조)계의 사람들은 주로 이들 부(負)의 사건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이케 쟁의 시에 노조와 결별했던 사람들이 결성한 미이케 신노조, 및 직원조합계 사람들은 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고수에서 벗어나, 과거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松浦雄介, 2013: 44-45).⁵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2015년 미이

⁵ 마쓰우라의 설문지 조사에 따르면 양자의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구분된다. 신노조·직원조합 측은 “전중전후의 부흥발전은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식이 확실히 전달되었으면 한다(직원)”, “미이케 탄광은 꽤 오랜 기간 일본의 번영을 지지해 온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남겨 두고 싶다(직원)”, “미이케 탄광이야말로 자신들이 살아온 증거(신노조 2인)”라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구노조 측은 “탄광에서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죽었는가. 그러한 것이 탄광의 역사에 새겨져 있다. 부의 부분은 확실히 전승해 가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역사를 소거한 유산화는 어떠한 것인가(제1노조 9인)”, “일본의 근대화는 규슈에서 시작했으며, 그것을 생각하면 문화유산화를 해야겠지만, 부의 유산도 포함해야 비로소 유산으로서의 가치

케 탄광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 시에도 그대로 지속된다. ‘일본의 근대화를 떠받쳐온 산업의 마을’이라는 긍정적 기억을 부상시키는 ‘규슈의 유산’에 적극적으로 관련한 사람들 다수는 주로 신노조나 직원조합 사람들이며, 미이케 구노조 사람들 다수는 문화유산의 ‘소독작용’에 비판적이라는 것이다(松浦雄介, 2018: 90).

5년에 걸쳐 미이케 지역의 집합적 기억을 추적한 마쓰우라의 작업은 기억의 사회적 틀(cadre social)로서 ‘집단’의 역할을 중시했던 알박스(M. Halbwachs)의 집합적 기억 논의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미이케 쟁의 당시 마지막까지 회사에 저항하고, 그 때문에 쟁의가 종결한 후 직장에 복귀하면서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부당대우를 받으며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구노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관주도로 진행되는 세계유산화의 존재 방식은 탄광의 ‘빛’(일본 근대화에 공헌)에 대해서만 말할 뿐, ‘어둠’(부의 유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며, 그 때문에 세계유산화 운동에 대해 부정 혹은 보류의 태도를 보인다. 반면, 미이케 신노조 및 직원조합원들에게 있어 탄광은 자신의 평생직장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화는 일본의 근대화에 공헌한 시설을, 그리고 그것과 이어져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인 형태로 후세에 남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계유산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松浦雄介, 2013: 46). 하지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공식 내러티브 속에 이러한 기억의 차이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봉합되어 있다.

2. 탄진폭발사고(1963)

1963년 11월 9일 미이케 쟁의의 격전지이기도 했던 미카와 갱내에서 일어난 탄진폭발사고는 이 지역의 집합적 기억의 일부를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고는 사망자 458명, 일산화탄소 중독환자 839명이라는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후 일본 최대의 산업 재해로 불린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은 사고 후에도 후유증에 계속 시달려야 했지만, 회사 측은 사후 대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환자와 유족 측의

가 있다(제1노조)”는 답변이 많았다(松浦雄介, 2013: 44-45).

소송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전개되었다. 또한 사고와 이어지는 소송의 여파로 회사 측이 탄광의 규모를 점차 축소해 간 결과, 1997년 완전 폐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松浦雄介, 2012: 84)에서도 현재 미이케라는 기억의 장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석탄을 운반하던 탄차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기 케이블을 손상시키고, 거기서 발생한 스파크가 광산 내의 탄진 구름에 불꽃을 일으켜 폭발한 사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업 재해는 항상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가, 즉 우연적인 재해인가, 아니면 작업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인가에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기술조사단이 각의결정으로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돌연 조사는 중단되고, 폭발의 원인이 갱내의 탄진 때문임을 주장한 조사단 구성원의 감정서는 조사 단장에 의해 ‘학문적으로’ 부인되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다음 해인 1964년에는 유족들이 미쓰이 광산의 사장 이하 4명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후쿠오카 광산보안감시국과 후쿠오카 현경 역시 광산보안법 위반이나 과실치사상사건으로 회사 측을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이유 모를 전근을 당하면서 결국 사건은 책임을 맡은 회사 간부 전원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森弘太·原田正純, 1999: 130-146; 熊谷博子, 2012: 212-227). 오랜 기간의 조사와 촬영을 거쳐 미이케 탄광의 지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구마가이 히로코는 이상의 전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실로 “국가와 기업, 학회와 사법이 한통속이 되어 은폐한 것”(熊谷博子, 2012: 226)이라고 단언하고 있다.⁶

⁶ 이는 비슷한 시기,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 규명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구조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미나마타병 발병 초기인 1956년에 이미 깃소 공장의 폐수로 오염된 미나마타만의 어패류가 ‘괴질’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식품위생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학계는 원인물질 규명에 매달린 채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 심지어 원인물질이 공장폐수에서 나온 유기수은이라는 사실이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에 의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깃소 회사의 영향 아래 있던 학계의 권위자들은 이를 부정했으며, 그 때문에 깃소의 폐수를 규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실로 산(産), 관(官), 학(學)이 일체가 되어 질병의 원인, 나아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데 협력했다는 점에서, 미나마타병 사례와 미이케 탄진 폭발 사건은 1960년대 일본의 고도자본주의화의 병리 구조를 보여 주는 쌍생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미나마타병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영진(2021)을 참조할 것.

사고의 원인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사고에 대한 지역 사회 내의 인식도 뚜렷하게 갈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극명한 차이가 미이케 쟁의 과정에서 대립했던 구노조와 신노조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노조(와 직원조합)는 이 사고를 예견 불가능한 우연의 사고(연결기 고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지만, 우연한 사고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누군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구노조는 이 사고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재로 간주한다. 미이케 쟁의 직전까지 광산보안법과 노조의 자주관리로 철저히 작업장의 안전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실제로 1950년대 중반까지 연간 12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이케 탄광에서, 노조가 가장 강력했던 1959년 사망자 수는 1명이었다) 구노조 측의 시각에서 봤을 때, 1963년의 대참사는 쟁의 이후 더 이상 노조의 압력을 받지 않게 된 회사 측의 무책임한 경영 방침과 안전 보안을 무시하고 효율만을 중시한 무리한 증산체제의 필연적 결과였다(森弘太·原田正純, 1999: 78-80).

이처럼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을 둘러싼 인식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희생자에 대한 애도 및 기억실천도 상이하게 전개된다. 사고 직후 구노조 측과 신노조 측은 별도의 장소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매년 추도식을 치러 왔다.⁷ 구노조 측의 추도식은 향의집회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고 후유증인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현재까지 생존해 있고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기업이나 국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신노조 측의 위령제는 매년 정례적으로 이어지다가, 1997년 폐산을 계기로 신노조, 직원조합이 해산되면서 그 이후로는 치르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이르러 지금까지 대립하던 구노조와 신노조, 그리고 직원조합 측이 합동으로 위령비를 건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비문의 내용(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기할 것인가의 여부)을 둘러싼 관계자들 사이의 의견 일치의 어려움, 그리고 비용 확보도 곤란해지면서 비 건립은 한

⁷ 탄진폭발사고의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위령비는 먼저 신노조와 직원조합, 전일본노동총동맹조합회의에 의해 건립되었다. 1964년 오무타 시내의 엔메이(延命)공원 부지에 건립된 이 비의 명칭은 '미가와광대재해순직자위령비(三川鉱大災害殉職者慰靈碑)'이다. 한편, 구노조 측은 사고 직후부터 노조사무소에 순직조합원 180명의 사진이 게시된 순직자위령 제단을 설치하고, 이 제단에서 향의집회적 성격이 강한 위령제를 치러 오다가, 1994년에 미이케 노동조합회관을 건설하면서, 그 옥상에 '미이케탄광재해희생자의 비(三池炭鉱災害犠牲者の碑)'를 건립했다(木村至聖, 2015: 23-24).

동안 중단되었다(松浦雄介, 2018: 157-158). 결국 2020년 11월 9일 전국적인 크라우드 펀딩 지원을 받아, 사고 현장이었던 미카와 갭 부지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1/10).⁸

탄진 폭발 사고가 남긴 또 하나의 후유증은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였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미나마타병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이영진, 2021), 피해보상에서 소송으로의 여정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면, 피해자들이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소송은 결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Scott, 1985)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보상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거쳐 가야 했던 수많은 난관들, 그리고 모든 구제 기회를 빼앗긴 이들의 마지막 수단인 소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의 소송(이하 ‘CO 소송’)이 시작된 것은 1972년 11월이었다. 탄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9년 후라는 시간은 피해의 여부 확인, 재해의 인정 기준 확인 등 오롯이 피해자들만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의 CO 소송은 구노조, 신노조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소수의 피해자 가족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첫 소송(이하 ‘CO 가족소송’)의 원고인 마쓰오(松尾修·蕙虹), 무라카미(村上正光·トシ) 두 가족에 대해 노조 측은 개인 소송을 도둑놈 심보(物取り主義)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소송 취하 요구에 불복한 마쓰오 씨를 노조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이들을 비난해 온 노조 측은 다음 해인 1973년에 손바닥을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환자와 유족을 포함한 422명을 원고로 회사를 상대로 총액 87억 1,700만 엔의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칭, ‘CO 맘모스 소송’으로 불린 이 소송은 피해자 숫자와 거액의 보상 청구액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두 소송은 그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첫째, CO 가족소송은 보상액을 환자 1인당 3,000만 엔으로 일률 청구했지만, ‘맘모스 소송’은 피해 정

⁸ <https://www.asahi.com/articles/ASNC972XJNC9TGPB001.html>(검색일: 2022. 2. 18.).

도에 따라 3,000만 엔, 2,000만 엔, 1,000만 엔으로 등급을 나눴다는 점, 둘째 CO 가족소송은 가족도 원고로 포함시켰지만, 맘모스 소송은 가족을 원고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미나마타병 재판에서 보듯, 등급 구분은 초래하는 피해자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일률 청구한 점, 그리고 피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은 손해로 가족들이 겪게 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점은 CO 가족소송의 획기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O 맘모스 소송의 원고 태반이 제소 이래 14년이 지난 1987년 7월 20일, 유족에게는 330만 엔, 환자에게는 최고 330만 엔, 최저 35만 엔이라는 낮은 보상금으로 미쓰이와 정식으로 ‘화해’하면서 끝난 반면, 가족소송의 원고 마쓰오 게이코 씨는 어디까지나 미쓰이의 ‘죄업’을 폭로하는 데 매달렸다.

가족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탄진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0년,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이 지난 1993년 3월 26일이었다.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는 미쓰이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보상금은 일률이 아닌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 엔, 최저 80만 엔으로 책정되었다. 원고 측 청구액 3,000만 엔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낮은 액수였다. 무엇보다 가족, 즉 부인이 입은 피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재판이 갖는 한계일 것이다. 마쓰오 씨 등 원고 측은 이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상고했지만, 1996년과 1998년 두 차례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결국 26년에 걸쳐 진행된 미이케 CO 재판은 끝이 났다(沢田猛, 1997; 森弘太·原田正純, 1999: 303-306 참조).

CO 소송의 한계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미나마타병 소송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해진다.⁹ 비록 하나는 공해병 소송, 다른 하나는 노동 재해 소송이라는 점에서 성격상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의 발생을 지지하지 못한 책임(발생책임),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최대한으로 확대한 책임(피해확대책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보상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미나마타병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열거한 3가지 책임을 묻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한다면, CO 소송

⁹ 미나마타병 소송의 전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이영진(2021)을 참조할 것.

의 경우 회사 측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또 피해 보상액도 원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승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피해 등급에 따른 보상 원칙은 같은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면서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미이케 쟁의와 뒤이은 탄진 폭발사고 후유증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구노조 측의 추도식이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가 아닌, 유족들과 환자 가족들의 항의의 목소리로 넘쳐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가동을 멈춘 탄광의 흔적들은 근대 일본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포장되어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피해자들의 끓어오르는 ‘원한’의 정념을 과연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공허한 수사학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자를 기억하는 수단을 갖지 못하며(荻野昌弘 2002: 6-22), 사고의 책임이나 보상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은 한층 어려워진다(松浦雄介, 2013: 47). 적들이 공식 기억을 독점하고, 승리를 거둬주고 있는 비상사태에서는 “죽은 자들까지도 그 적 앞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완벽하게 확신해야” 한다는 벤야민(2008)의 테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3. 조선인·중국인 강제노동

일본 열도에 있는 탄광들은 어느 곳이든 일정 시기,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쟁 후기인 1940년대, 조선인·중국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 최대의 탄전이자, 당시 조선과 가까운 규슈의 미이케 탄광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쓰이 미이케 탄광의 경우 본격적인 강제노동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공개된 조선인 강제연행 노동자들의 명부에 따르면, 미야하라 갱이 위치한 오무타 지역만 하더라도 1만 2,000여 명이 동원되었다(中川雅子, 1996: 38-39). 물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공식 내러티브에는 이러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빠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에 일본 정부가 도쿄에 건립한 인포메이션 센터 역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이케 지역 사회 내에는 조선인들이 실제로 끌려와서 일했던 현장의 흔

적들과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물들이 남아 있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오무타시의 석탄산업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이케 탄광 마와타리(馬渡) 주택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는 주택 벽면의 일부만이 보존되어 있는데, 돌로 된 벽면에는 과거 이곳에 거주했던 조선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경기(京畿)도 장단군’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어 당시 이곳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의 망향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1939년에 건립된 마와타리 주택은 원래 탄광 노동자들의 숙소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일부 건물을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글씨가 새겨진 벽은 1989년에 발견되었는데, 숙사가 있던 지역이 전후 재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소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보존을 호소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커지면서 벽면의 일부만이 현재 전시관으로 옮겨졌다고 전시관의 해설은 쓰고 있다.

한편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위령비로서, 3개의 중국인 위령비와 2개의 조선인 위령비가 각지에 건립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최초에 건립된 위령비는 ‘불이지탑(不二之塔)’과 ‘중국인순난자위령비(中國人殉難者慰靈碑)’로, 중일공동생명 직전인 1972년, 만다 갱이 위치한 아라오(荒尾)시의 쇼보지(正法寺)에 위치해 있다. 비문에 새겨져 있듯이, ‘불이’란 ‘본래 하나다’라는 의미의 불교용어로, 해방 이후에 분단되어 상호교류가 단절된 남북 조선인들의 비극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평화적 교섭에 이르러 남북이 통일되어 순난자들의 영들 앞에서 남북 조선인들이 하나가 되어 조국재건 부흥에 진력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건립한 비다. 이 두 위령비 앞에서는 매년 위령제가 거행되는데, 위령제에는 화교단체, 민단, 총련, 행정, 지방의원, 한국영사들이 참가한다고 한다(松浦雄介, 2018: 158).

세 번째 비는 ‘미쓰이 미이케 탄광 중국인 순난자 위령탑’(三井三池炭鉱中國人殉難者慰靈塔)으로, 원 미이케 탄광노동자인 B씨가 사재를 털어 1983년 아라오시의 산중에 건립했으며, 전시기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중국인 강제노동의 참상과 그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문에는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564명의 죽음이라는 이런 비참한 희생의 가해자가 된 것을 반성하며, 영원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간의 슬픔에 국경은 없음에도, 국경이 인간을 슬픔의 심연에 빠뜨리게 한 것은 얼마나 부조리

한 것인가”라는 비문이 인상적이다.

네 번째 위령비는 1995년 당시 오무타의 제일 민단 관계자였던 우판근(禹判根) 씨가 오랜 기간 미쓰이계 기업에 건립비 지출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오무타시 아마기(甘木) 공원 부지 내에 건립된 것으로, 용지는 오무타시가 무상대여했다. 위령비 옆에는 마와타리 사택 벽면에 남겨진 문자를 새긴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이 위령비 앞에서 매년 치러지는 ‘징용희생자 위령제’에는 민단관계자 외에 지역의 시민단체나 한국영사, 오무타시청 관계자가 참가한다고 한다(西日本新聞 19/04/09). 물론 최근 일본 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는 ‘혐한(嫌韓)’ 정서를 반영하듯, 기념비 벽면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강제 동원은) 거짓말’이라는 낙서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西日本新聞 15/10/26).¹⁰

마지막으로 5번째 위령비인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야우라(宮浦) 갱 중국인 순난자 위령비’는 2013년 일중우호협회의 지방지부가 기부금을 모아 건립한 것으로, 미야우라 갱 석탄기념 공원 부지에 세워져 있다. 앞서 3번째 위령비를 건립한 B씨를 포함한 일중우호협회 소속의 구 탄광노동자들은 다수가 미이케 노조 출신이다. 이 위령비가 건립된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2007년에 걸쳐 전개된 중국인 강제노동을 둘러싼 일련의 재판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중국인강제연행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1972년 일중(日中)공동성명에 의해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최고재판소 판결로 원고는 패소했다. 단, 이와는 별개로 최고재판소는 보상이나 화해를 위해 관계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권고의 의미를 일중우호협회가 적극 살려내어 오무타시에 위령비 건설 허가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시의 무상대여로 현재의 장소에 세워지게 된 것이 현재의 위령비이다(松浦雄介, 2018: 159). 위령비에는 중국인 약 4만 명이 강제 연행되고, 가혹한 노동이나 사고, 질병 때문에 약 7,000명의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전쟁에 의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역사적 평가도 새겨져 있다.

¹⁰ 이상 위령비와 관련된 내용은 『니시니혼신문(西日本新聞)』 인터넷판을 참조한 것으로 아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www.nishinippon.co.jp/item/n/501074/>, <https://www.nishinippon.co.jp/item/o/287429/>(검색일: 2022. 3. 31.).

이 5개의 위령비에 공통적으로 깃들어 있는 것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전 평화를 희구하는 정신(esprit)이다. 전후 일본의 지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위령비들, 그리고 최근 들어 가끔씩 혐오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매년 시민들을 중심으로 위령비 앞에서 치러지는 위령제와 같은 기억 실천이야말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적되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억 실천들이 세계문화유산의 구성자산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4. 미이케 탄광 초기 암흑의 역사: 수인(囚人)노동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미이케 탄광의 초기개발사에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수인노동의 역사이다. 수인노동의 역사는 탄광 개발 초기인 18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3년은 미이케 탄광에 수인노동이 정식 채용된 해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889년에 이르면 전체 채탄부 중, 수인 갱부가 1,309명, 일반 갱부가 651명으로, 수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67%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갱부에 비해 수인 갱부의 경우 보수나, 노동시간에서 대우가 훨씬 열악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갱부의 노동시간은 요시오(芳夫) 광산이 6시간, 다가와(田川) 광산이 7시간인 것에 비해, 미이케는 11시간이었다. 임금에 있어서도 일반 갱부가 1910년(메이지 43) 요시오가 65전, 다가와가 83전인 것에 비해 미이케의 수인 갱부는 48전을 받았다. 노동 환경도 열악해서 미이케의 수인 갱부가 갱내에 한번 들어가면 식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한다(中川雅子, 1996: 86-87). 미야하라 갱의 별칭인 시라코(수라갱, 修羅坑)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이케 탄광은 죄수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현장이었고,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다 죽은 죄수들의 시체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쓰이 미이케 탄광의 창업자 단 타쿠마(團琢磨)는 수인 갱부보다 탄광 회사 직할의 일반 광부 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사회 일

반에서 광부는 천업으로 간주되던 터라 일반 광부의 모집이 곤란했고,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경비 절감 등의 관점까지 고려하면 수인노동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은 부족했고, 이를 메꾸기 위해 미쓰이 측은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오키나와 인근의 요론지마(与論島)나 조선 반도에까지 손을 뻗었다. 구치노쓰(口之津) 항으로 요론지마 출신자들의 집단 이주가 이루어지던 1899년 무렵에는 50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하역 노동을 했다고 한다(竹内康人, 2018: 121).

탄광의 수인노동 비율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1894년 가쓰타치 갱(勝立坑)의 개항, 그리고 1897년 만다 갱 착공 등 미이케 탄광이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이제까지 수인의 기술 수준으로는 작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직접적 노무 관리에 의한 전 노동 과정의 파악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05년 11월에 제정된 광부고용노역규칙(“광부는 만 12세 이상 신체건강 품행방정, 노역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고용한다.”), 1916년 공장법 시행 등으로 갱부의 자질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도 그 한 이유였다. 이렇듯 1896년을 정점으로 해서 수인 갱부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지만, 수인노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30년 12월이었다(이상 上妻幸英, 1980: 92-114 참조).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수형자 강제 노동의 결과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2,4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竹内康人, 2018: 121-123).

근대산업혁명의 발상지 미이케 탄광이라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내려티브에서 이 어둠의 역사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으며,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역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메이지기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누락은 더욱 문제적이다. 그나마 미이케 탄광의 비공식 인포메이션 센터 역할을 하는 오무타의 석탄산업과학관의 전시에서는 수인노동과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를 조금 언급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미쓰이 탄광의 초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단 타쿠마라는 한 테크노크라트의 생애와 기술 개발 관련 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미이케 탄광 지대를 실제로 거닐고 있노라면 이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일부만 보존되어 있지만 수형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883년에 만든 감옥 시설인 미이케 슈지칸(三池集治監)이나, 강제 노동 과정에서 죽은

수인 갱부들 중 연고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시인 1888년에 건립한 위령비인 ‘게다쓰탑(解脱塔)’, 1996년 과거 감옥의 묘지 터를 공원화하는 작업 도중 새로이 발견된 70여 구의 유골들을 합사해서 1997년에 오무타시 수인묘지보존회가 건립한 ‘합장지비(合葬之碑)’가 그 대표적인 흔적들이다. 특히 게다쓰탑은 미이케 탄광 개발에서 수인노동의 역사를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기억의 장으로, 오무타시 수인묘지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매년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무타시 수인묘지보존회 역시 그 핵심멤버들이 미이케 구노조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앞서 언급한 탄진 폭발사고의 희생자나 강제연행 중국인·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 등 미이케 지역의 부의 역사에 대한 기억·실천이 주로 미이케 구 노조의 네트워크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中川雅子 1996: 45-48; 松浦雄介, 2018: 158).

V. 나가며: 폐허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

알레고리와 더불어 역사는 감각적으로 무대 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역사는 영원한 삶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멈출 수 없는 몰락의 과정으로 각인된다. 이로써 알레고리는 아름다움 바깥에 존재함을 스스로 고백한다. 알레고리가 사유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폐허가 사물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같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중에서

오무타시의 ‘역사를 살린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이케 탄광 폐산 다음 해인 1998년부터 약 7년에 걸쳐, 미이케에서 태어난 지역 주민 100여 명의 인터뷰와 관련 시설 영상들을 엮은 다큐멘터리 〈미이케 끝나지 않은 탄광의 이야기(三池 終わらない炭鉱の物語)〉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상당한 호평을 얻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작업을 정리하면서 구마가이 히로코 감독은 “탄도(炭都) 미이케의 역사는 실로 근대 일본의 축도(熊谷博子, 2012: 26)”라고 그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걸었던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를 견인했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 산지로서 전후 재건 및 부흥에 이르기까지 미이케 탄

광은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이 일궈 낸 일본 근대화 역사의 산 증인이자,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자랑스러운 구성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문에서 고찰했듯이 미이케의 역사는 이렇듯 화려하고 빛나는 광채로만 채색될 수는 없다. 탄광 개발 초기부터 시작된 수인노동, 요론티마 사람들의 집단이주노동 및 차별의 역사,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중국인들의 강제 노동의 역사, 그리고 전후에 들어서는 ‘총자본 vs. 총노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미이케 쟁의와 무수한 사망자와 일산화탄소 중독 희생자를 냈던 탄진 폭발 사고와 사고가 남긴 깊은 상처에 이르기까지, 미이케 지역에는 근대 일본 자본주의의 어둠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4년의 역사를 끝으로 미쓰이 미이케 탄광은 폐산했고, 현재 그 땅은 폐허로 남아 있다.

서구 예술사에서 폐허가 하나의 풍경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7세기 바로크 시기였다. 폐허에서 의미심장한 파편과 영원한 찰나성을 발견하고, 3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자연의 의미를 읽어 내기 위해 바로크 작가들이 주목한 미학적 장치는 알레고리였다. 『독일 비애극의 원천』에서 바로크적 알레고리가 갖는 신화의 해독제적 성격을 간파해 냈던 벤야민이 20세기 초 파리에서 아케이드 프로젝트(파사젠베르크)라는 그 필생의 과업에 착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크적 알레고리는 역사와 자연을 버리고 영혼으로 도피해 버리는 관념론, 나아가 ‘우울증환자의 정치학’에 머무르고 있었다(백모스, 2004: 227). 이러한 바로크적 알레고리를 비판하며,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시에서 “이 세계에 난입하여 그 조화로운 구성물들을 깨트리고 파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내적인 분노의 흔적(벤야민, 2010: 274)”을 간직한 ‘멜랑콜리적 알레고리’를 발견해 낸다. 그가 19세기의 수도 파리를 읽어 내기 위해 개념화한 ‘변증법적 이미지’ 역시 이러한 알레고리의 근대적 형태였다. 사유의 영역에서의 알레고리는 사물의 영역에서의 폐허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산업문화의 잔재가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적 파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연성이 아니라, 이러한 파국이 필연적이라고 공언하는 사회제도의 허약성이며, 문명의 불멸성을 기리는 기념비가 붕괴한다는 것은 문명의 한시성의 증거이며 변증법적 이미지는 사물의 신화적 형식인 소망 이미지에 대한 반정립이자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벤야민의 주장이었다(백모스,

2004: 222).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폐허가 되어 버린 아케이드에서 ‘근대 상품자본주의의 원조 신전’의 모습을 보았던 벤야민의 시선을 빌려 온다면, 폐허가 되어 버린 탄광은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원조 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속에 얽혀 있는 다양한 기억-이미지들은 메이지 일본이라는 신화화된 근대의 알레고리라는 것, 따라서 기억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임무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신화적 기억 속에 봉인되어 버린 미이케 탄광의 다양한 어둠의 기억들을 읽어 내면서, “과거가 인식 가능성의 지금과 관계 맺는 형식이자, 점진적인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는 연속성의 고리를 파괴하고 역사적 존재의 의식에 스치듯 나타나는 과거의 ‘진정한’ 형상”(강수미, 2011: 89)으로서의 변증법적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질서’의 이미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는 거울(벤야민, 2010: 158)”로서의 만화경은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 산업자본주의의 원조 신전을 다시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문화유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 ‘진정한 형상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19세기 파리의 아케이드를 ‘거북이걸음’으로 산보하던 보들레르의 작업에서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 가능성의 ‘지금’ 섬광처럼 나타나는 이미지”(벤야민, 2010: 290)를 붙잡고자 했던 벤야민의 비의적인 미학적 작업을 과연 일반인들이 좇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폐산이 임박하던 1995년 여름, 미이케 출신의 한 소녀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구립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을 뒤적거리고, 때로는 우연히 만난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성장해 온 지역의 역사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 가는 놀라운 작업을 수행해 냈다. 과거의 진정한 형상으로서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찾기.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마을의 익숙한 풍경에서 어딘지 낯선, 이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그 낯성을 몸소 확인해 보는 사소한 일상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1995년 여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

도 살고 있는 마을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 여름날 자신의 행동을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꿈만 같은 느낌이 든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지도를 한 손에 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날들. 수인강제노동, 그리고 조선인, 중국인의 강제노동의 역사 … 나는 우연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해 주변 마을 약 27개소를 탐방하면서, 향토의 근대사를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행동이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수인들의 뼈를 발견해 묘표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우리 마을의 이곳저곳에는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의 무수한 사체가 묻혀 있다.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수인묘지였을 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시치미를 떼고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은 시체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나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中川雅子, 1996: 91-93).

투고일: 2022년 6월 15일 | 심사일: 2022년 7월 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 김경원 역. 1999. “계급에 대하여: 나쓰메 소세키론 1.”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이산.
- 강수미. 2011.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저. 고은미 역. 2021. 『기억의 에티카: 전쟁·철학·아우슈비츠』, 소명출판.
- 뢰비, 미카엘(Löwy, Michael) 저. 양창렬 역. 2017. 『발터 벤야민: 화재 경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 난장.
- 벅모스, 수잔(Buck-Morss, Susan) 저. 김정아 역. 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 벤야민, 발터(Benjamin, Walter) 저. 최성만 역. 2008.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 초현실주의 외 | 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 _____ 저. 최성만 역. 2009. 『독일 비애극의 원천』, 한길사.
- _____ 저. 김영옥·황현산 역. 2010. “중앙공원.” 『발터 벤야민 선집 4: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도서출판 길.

- 시바타 토시아키(柴田利明). 2017. “보론: 침몰! 군함도. 세계문화유산화의 말로.” 나가사키 제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저. 박수경·전은옥 역. 『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하시마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기록』. 도서출판 선인.
-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저. 이진우·박미애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 어리, 존·요나스 라슨(Urry, John and Jonas Larsen) 저. 도재학·이정훈 역. 2021. 『관광의 시선』. 소명출판.
- 이영진. 2020.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일고찰.” 『아세아연구』 63권 2호, 137-174.
- _____. 2021. “질병의 사회적 삶: 미나마타병의 계보학.” 『일본비평』 25호, 260-297.
- 황선익. 2016.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일본공간』 19권, 196-226.
- 荻野昌弘. 2002. “負の歴史的遺産の保存: 戦争・核・公害の記憶.” 荻野昌弘 編. 『歴史的環境の社会学』. 新曜社.
- 上妻幸英. 1980. 『三池炭鉱史』. 教育社.
- 沢田猛. 1997. “妻たちの叫びも法廷へ.” 『閉山三井三池124年』. 毎日新聞社.
- 木村至聖. 2015. “近代産業における「非業の死」はいかに記憶されるか.” 『日仏社会学年報』 26号, 17-30.
- 木村至聖·森久聡(編). 2020. 『社会学で読み解く文化遺産: 新しい研究の視点とフィールド』. 東京: 新曜社.
- 竹内康人. 2018.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強制労働 Q&A』. 社会評論社.
- 永吉守. 2008. “近代化産業遺産の保存・活用実践とその考察: 大牟田・荒尾のまちファンクラブの事例より.” 西南学院大学博士論文.
- 中川雅子. 1996. 『見知らぬわが町: 1995万夏の廃坑』. 福岡: 葦書房.
- 平井陽一. 2000. 『三池争議: 戦後労働運動の分水嶺』.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松浦雄介. 2012. “産業遺産と文化のグローバル化: 九州・三池炭鉱の事例から.” 『日仏社会学年報』 22号, 83-103.
- _____. 2013. “記憶と文化遺産のあいだ: 三池炭鉱の産業遺産化をめぐる.” 『西日本社会学学会年報』 11, 37-50.
- _____. 2018. “負の遺産を記憶をすることの(不)可能性: 三池炭鉱をめぐる集合的な表象と実践.”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 17卷, 149-163.
- 森弘太·原田正純. 1999. 『三池炭鉱: 1963年炭じん爆発事件を追う』. 日本放送出版協会.
- 吉田勉夫. 2008. “「負の遺産」を大牟田市再生のエネルギーに!!.” 『月刊自治研』 50, 64-70.

- Davis, Fred. 1979. *Yearning for Yesterday: A Sociology of Nostalgia*. New York: The Free Press.
- Hewison, R. 1987. *The Heritage Industry: Britain in a Climate of Decline*. London: Methuen.
- Lowenthal, David. 2015[1985]. *The Past is Foreign Country* (rev.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mith, Laurajane. 2006.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 Urry, John. 1996. "How Societies Remember the Past." Sharon Macdonald and Gordon Fyfe, eds. *Theorizing Museums: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 Cambridge, Mass.: Blackwell.
- Walsh, Kevin. 1992. *The Representation of the Past: Museums and Heritage in the Post-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 White, Geoffrey M. 2005. "Emotive Institutions." In Conerly Casey and Robert Edgerton, eds. *A Companion to Psychological Anthropology: Modernity and Psychological Change*, 241-254. MA: Blackwell.
- <https://www.asahi.com/articles/ASNC972XJNC9TGPB001.html>(검색일: 2022. 2. 18.).
- <https://www.nishinippon.co.jp/item/n/501074/>, <https://www.nishinippon.co.jp/item/o/287429/>(검색일: 2022. 3. 31.).

Abstract

The History of Light and the Memory of Darkness: The ‘Negative Legacy’ of Miike Coal Mine, World Heritage Site

Yungjin Lee Kangwo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local community responds to the effects of ‘heritagization’, looking at the hidden memories of the Miike Coal Mine, an asset of the ‘Site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as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5, from a regional historical perspective. Being Japan’s largest coal mine with a history of 124 years, the Miike Coal Mine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mnemonic site with symbolic value in any account of modern Japanese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official narrative of ‘the birthpla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arly modern Japan’ has many limitations in capturing various emotional memories within the community about the Miike Coal Mine. For example, the official narrative minimizes the Mitsui Miike Strike (1959-1960), known as Japan’s most severe postwar labor dispute and the coal dust explosion (1963), which still remain i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Miike community and thus, are remembered in widely varying memory practices due to opposing views and emotional confrontations among community members surrounding these events. In addition, the official rhetoric touted in the World Heritage, which emphasizes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early modern Japan, closes eyes to dark memories such as the abuse of Korean and Chinese forced laborers at Miike Coal Mine during the Asia-Pacific war and sufferings of prisoner laborers deployed in the early days of coal

mines. In this regard, the attempt to explore the dark history of the Miike Coal Mine concealed under its 'mythical memory' as the birthplace of the Meiji Japan's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manuscript may be understood as a variation of Walter Benjamin's aesthetic treatise aimed to construct the dialectical image as a true picture of the past .

Keywords | Site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negative legacy, Miike Coal Mine, memory politics, heritagization, dialectical image